

## 나가사키 평화선언

올해 3월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우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드러난 원자로. 인근 도시에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사선을 피해 대피한 주민들이 언제쯤이면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 모어 피폭자’를 호소해 온 피폭국민 우리가 왜 또 다시 방사선의 공포에 떨게 된 것일까요.

자연의 무서움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인간의 제어력을 과신하지는 않았는지, 미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근본부터 논의하고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보다 안전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대체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신화를 은연중에 믿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2만 발 이상 존재하는 핵무기는 어떻습니까?

핵무기 억제력 덕분에 세계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 않은지요. 핵무기가 사용될 일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지 않은지요. 한 군데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말미암은 방사선이 이처럼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핵무기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인도적인 일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상공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때 보다 수백 배나 강력한 핵무기가 작렬하는 공포를.

인간뿐만 아니라 물체도 녹여버리는 강력한 열선. 건물을 날려버리고 무너뜨리는 엄청난 폭풍(爆風). 폐허로 변한 도시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검게 타버린 시체가 산란할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생존자가 있다고 한들 강력한 방사선 때문에 구조하러 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방사선 물질은 바람을 타고 멀리 운반되어 지구는 광범위하게 오염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미래의 자손들이 경험하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필요 없다. 핵무기를 인류가 보유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작년 4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연설을 하여 최강의 핵보유국이 표명한 명확한 목표에 세계의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조약 성립 등 일정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 이후 커다란 진전은 보이지 않고 새로운 모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역행하는 움직임조차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각하, 피폭지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핵무기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핵무기금지조약(NWC)’ 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일본정부에는 피폭국의 정부로서 이러한 움직임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헌법에 실린 전쟁 불허과 평화 이념에 따라 행동할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비핵 3 원칙’의 법제화와 일본과 한국, 북한을 비핵화하는 ‘동북아시아의 비핵무기 지대’ 창설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하고 있는 피폭자의 실상에 맞는 충실한 원호 대책을 바랍니다.

나가사키시는 올해 유엔과 일본정부, 히로시마시와 연계하여 주네브의 유엔 유럽본부에 피폭의 참상을 알리는 자료를 전시합니다. 우리는 원자폭탄의 파괴력의 무서움과 참혹한 실상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바라는 여러분, 당신의 도시에서도 나가사키시와 협력해서 작은 원폭전시를 개최해 주십시오. 세계의 거리에서 피폭 사진 패널을 전시해 주십시오. 피폭지와 함께 손을 잡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평화의 고리를 연결해 갑시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원자폭탄에 의해 나가사키의 거리는 피멸되었습니다. 그 폐허에서 우리는 평화도시로서 재건을 이룩했습니다. 후쿠시마의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동일본 지역 재해민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재해 지역의 부흥과 원자력발전소 사고 수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자폭탄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히로시마시와 협력하여 세계를 향해 핵무기 근절을 계속 호소해 나갈 것을 여기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2011년 8월 9일  
나가사키 시장 다우에 도미히사(田上 富久)